

합리적인 피복생활



글 쓴 이

김 분 칠

가정학회 의생활 부장

1. 被服生活……衣食住는 우리 인류의 물질적 생활의 기초인 삼대 요소인데 그 중 食과 住는 사람 외의 모든 동물에게 공통되는 요소이지만 피복을 몸에 착용한다는 것은 衣服飾은 인간에게 부여된 본능이고 특권이며 또 입무이므로 이것을 무시 하여서는 인간생활이 완전히 있을 수 없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 피복은 더 말할 것 없이 이것을 사람이 입어서 건강을 보지하고 예의를 지켜 인품있게 하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사람의 본능을 자기뿐만 아니라 타인과 함께 사회적으로 만족시키기 위하여 이것을 어떤 형식으로 몸을 싸는 것이 被服이며 이것을 필요로 하고 이것이 동반되는 物的 生活內容을 被服生活이라고 한다.

2. 被服의 명사……즉 被服을 입는 것은 우리의 體溫 調節과 (1)身體 保護와 동시에 피복은 일면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2) 身體裝飾의 용구인 것은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다름이 없다. 때와 장소에 따라 적절한 피복을 입어 신체를 장식하여 자기의 美的 감정을 만족시키는 동시에 타인에게도 好感을 가지게 하는 것은 현대인에 있어서 着衣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한다.

被服을 保健衛生의 목적으로 착용하는 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고 整容의 목적으로 착용하는

것은 착용자 개인만이 아니고 道德 禮儀를 위한 것이며, 사회인으로서 대중과 함께 삶의 가치있는 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피복착용은 실리(實利)만으로는 사회인으로서 생활하는데 결함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현대의 피복사명은 보건위생과 정용 양면에 대등하게 관계되는 것이다. 19세기에 영국文豪「카아르일」(Thomas Carlyle)은 말하기를「피복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으로 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노예로 할 우려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警告한 바 있다. 덮어 놓고 유행을 추구하여 화려와 艷麗를 경쟁하여 장식물로만 생각하며 보는 것은 우리의 이성이 아닐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피복을 지나치게 조야하게 함은 올바른 지식과 이성을 가진 현대인의 생활이라고도 할 수 없을 것이다.

3. 食理化……이 被服生活의 主營爲者인 여성들은 가족의 피복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피복에 대한 합리적인 지식과 노력으로 결함 없는 피복생활을 함으로써 능률적인 생활을 지향하여 낭비 없는 과학적인 생활태도를 習得 實踐하여야 한다. 생활의 합리화는 물론이고 피복생활의 합리화라 함은 자기 분에 맞는 범위내에서 계획성을 가지고 생활을 해 나간다는 것이다. 우리와 피복생활에 계획성을 갖게 하는 데는 각자의

개성 家庭經濟 社會風潮의 변화 국가경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4. 被服生活의 計劃……우리의 생계비 중에는 主要費目인 衣食住費 외에 常備費, 敎化費, 家事運營費등이 있는데 이러한 費目과 衣料費와의 비례는 대략 균형되도록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의료비의 適用은 그의 생활에 비해 옷만 지나치게 화려해 지고 그 반면에 다른 생계비에 결합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옷만의 생활은 자기의 본 또는 전체생활에 알맞는 안전한 내용있는 탐담한 생활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덮어 놓고 값진 옷만을 옷이라고 하고 奢侈와 流行을 따르는 태도는 새시대에 적용된 생활태도가 못된다.

이 의료비에 있어서는 각자의 생활환경에 따라 여러가지 정도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피복은 어디까지나 신체의 보호와 장식의 목적을 위하여 입는 중대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있어서는 아니된다. 이 직분을 각기 생활 환경에 응하여 가장 적당한 한도에서 이것을 만족시키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즉 생활 환경이라는 것은 家庭經濟狀態, 年齡, 職業, 身分 其他 生活樣式인데 이것의 차이가 많다 하여도 각각 그 환경에 적당히 상의 직분을 다 하도록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피복비는 피복비로서의 한계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이러한 관념으로 피복을 정비하려면 어느 정도의 의료비가 필요한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歐美각국의 자유 경제시대의 각국 각 방면에 서의 總合的인 통계에 의하면 약 19 내지 15% 정도가 표준으로 되어 있다.

그 당시의 한국은 통계 숫자는 없으나 생활태도로 보아 이보다 많았다고 추측된다. 수복후 1955년도의 한국은행 조사부의 통계 결과를 보

면 피복비가 15%이고 1956년도는 13%이고 1957년도는 11%라는 많은 숫자를 내고 있다. 전후 우리의 생활 표현인 것 같으나, 대체로 과거 또는 현 생활태도에 의하면 주택이나 식생활에 비해 피복에 많은 비용을 들여 고급으로 장식에 주력하는 경향이 엇 보인다. 대개 최신행으로 가장 새로운 옷을 입었어도 사는 집은 옛 그대로의 부엌 하나 改造치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생활태도가 아닌가 반성된다. 그런데 이 피복생활의 표준이란 현재의 우리나라 경제태도로는 정하기 어려운 일이다. 개인은 被服所有數 家庭에서는 가계에 대한 피복의 표준 또는 사회적 국가적으로는 섬유 소비량의 표준 등이 있어야 함으로 이러한 件이 적당히 배안(配案)됨으로써 그 표준의 기도가 파악될 것이다.

그러므로 경제안정에 따라 각자의 실정에 많은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대체로 현경제상태로는 10%가 불가능 하나 동란으로 피복생활이 극도로 폐퇴 되었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피복생활을 만족시켜야 하므로 될 수 있는 대로 실질적인 피복생활계획을 도모하여야 한다. 같은 피복비를 갖고도 사치와 장식적인 것만은 남을 정도로 마련하나, 필요한 비옷 또는 방한복을 못마련 하여 비오는날 또는 추운 날에 불편을 느껴 우울하고도 비 활동적인 생활을 하기보담 세밀한 예산을 세워 중첩됨이 없이 필요성에 따라 없는 의류를 한가지씩 준비하여 이에 빈틈 없는 생활을 합은 총명한 생활 방법이라고 하겠다.

실제 계획하는 데는 첫째로 현재소유하고 있는 피복을 세세히 조사하여 과거 이상으로 이용하여 사용하도록 하여 이에 수명을 최대 한도로 길게 하며 이것을 토대로 계획하게 된다.

우선 의료중 소모품 즉 내의류, 양말 수선용

실등의 신장에 주력하고 다음에는 가장 필요한 옷옷 類를 마련하는데 제 1기 계획 때에 생각했다가, 제 2기 의류비에 이것이 실행되었던 예산을 세운다. 제 2기에는 出產豫定者인 이 임시 新製費도 고려한다. 이러한 생각으로 필요에 따라 무리없이 계획하여 준비한다.

우선 현재 갖고 있는 所持品을 調査하여 피복 정리카드에 세세히 기입하여 이것을 토대로 새로 구입할 것을 계획한다. 이 被服整理카드에는 각자의 이름 의류의 품명 지질 보존 장소 用途(外出用·平常用)別 買入年月日 점포명 買入時의 가격 등을 기입하도록 하여 피복전체의 현상태를 파악한다. 그 결과 완전한 것과 破損되어 수선이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도 품종 별로 분류한다. 또는 피복 재료의 예비품(미리 준비해 두었던 갑)등을 명확히 하여 가장 부족한 것을 알게 한다. 따라서 새로 만들 것과 보충할 것이 명기하게 된다. 이렇게 하여 소지품을 버리에 두고 새로 만들 것을 예정하여 두면 자기가 가장 필요한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만들기 전에 色型, 地質, 價格등 충분히 생각하게 되어 무리없이 매년 차례로 정비할 수 있으며 예산을 세워서 買入하게 된다.

被服計劃의 方法……여기에 몇가지 예를 들어 설명한다.

(예 1)매년 피복비의 일 예로서 3인 가족의 1개년 피복비 설계를 한다. 이 집 월수입이 6만환 내외의 월급 생활자이다. 그럼으로 그 10%가 피복비로 쓸 수 있게 된다. 우선 현재 가지고 있는 피복을 최대 한도로 수명을 길게 사용하도록 노력하고 꼭 필요한 소모품 보충비를 계획하도록 한다.

第一年度에는 의류중 소모품 즉 내외의 제작에 주력하고 제 2년도는 가장 필요한 옷옷류를

제 1년도 계획에 생각했다가 이것이 실현되도록 제 2년도 피복비에 계획한다. 제 2년도에는 출산 예정인 경우에는 임시 신제비도 고려하여야 한다.

(예 2) **젊은 분의 복장계획** 젊은 분들은 表面의이고 화려한 복장생활로 되기 쉬우나 좀더 실질적인 면에 착안하여 장래를 위하여 내용있는 의생활을 건설하도록 권하고 싶다. 우선 실질을 생각하여 믿음직한 매력을 몸에 지니고 싶다. 이러한 태도로 제 1년도의 피복생활을 생각하여 일상생활에 가장 필요하고도 쉬 소모될 양 말 내의 우선용 실등을 잘 조사하여 구입하고 다음에는 꼭 필요한 외투 옷옷등의 큰 것을 계획하는데 문제되는 것은 현재의 所持品인데 이것은 잘 調査해서 과거보담 더 유익하게 이용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이것은 그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각각 被服計劃의 귀중한 토대가 된다.

所持品の 現在調査 여자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서 일하는 여자의 필요품 일례를 들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現 所持品調査 결과

夏服………목면원피스	2
부라우스	3
스카아트	2
한복 저고리	2 (訪問用)
한복 치마	1 //
水浴服	1
레인코오트	1
冬服………스우즈	1
투피스	1
한복 저고리	2
치마	2
웨타	1
즈본	1

외투	1
春秋……자켓트	2
긴팔부라우스	2
한복 저고리	2
半코오트	1 (更生品)
웨에타	2
스카아트	1
즈본	1
內衣類……속샤쓰	4
슈미즈	3
한복 속치마	2
부르마스	2
드로오즈	4
즈본內衣	2
에프론	2
잡옷	2
付屬品……부라지야	2
코올자	2
양말	4
삭쓰	2
장갑	2
마후라	2
손수건	3
핸드백	2
모자	1
구두	1
양산	1
비신발	1
여름용산 달型白靴	1
타올	2
고무신	1

購入豫定 上와 같은 所持品을 머리에 두고 이것을 가지고 이용 또는 다시 만들어 쓰도록 하고 右의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투피스	1
부라우스	2
부르마스	2
양말	2
삭쓰	2
손수건	2
실	

부라우스 2개 선택한 것은 새로 만드는 투피스와 어울려 갈아 입을 것을 생각한 것이다.

이렇게 하여 예정을 세워두면 자기의 가장 필요한 것이 머리에 확실하기 때문에 새로 만들 때 色 型 地質 價格 등에 대하여 충분히 연구하여 무리 없이 매년 차례로 정비할 수 있고, 예산을 세워서 배입하게 됨으로 실용적이고도 윤택한 피복생활을 함과 동시에 낭비 없는 합리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例 3) **新婚家庭의 服裝計劃** 신혼가정의 주부의 의생활은 처녀시대부터의 소지품 또는 결혼 때에 준비하여 일단 정비되어 있음으로 우선 가정에서 소모되기 쉬운 시이썬, 타올, 이부자리 등에 의류 구입 목표를 둔다.

그 한편 출산준비에 필요한 피복 일체를 갖추도록 한다. 그러나 이것도 전부를 새 것으로 만들 수 없다. 있다 하더라도 被服費 節約上 남은 것 또는 불필요한 것 폐물등을 이용하여 오밀조밀 만들어진 것이 즐거운 생활태도일 것이다.

아기옷 일체 例

衣類……기저기	10 (반은 폐물 이용)
기저기카바	2
웃속내의	2
中間內衣	2
웃옷	3 (두벌은 있는 감을 이용)
바지내의	2 (큰 내의 개조)
턱받이	2 (있던 감 이용)

모자	2 (있는 감 이용)
양말	2
벼개	1 (있는 감 이용)
벼개넛	2 (있는 감 이용)
침구……요	2 (小大) (개조)
이불	2 (小大) (개조)
싸안을 것	2 (있는 감 이용)
큰 타올	2
이불호중	2
애기담요	1

이상은 최저한도의 피복수를 계산하였는데 각자의 생활에 알맞은 종류 또는 수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종류나 수가 필요이상 많아지면 오히려 피복생활이 복잡해진다. 종래의 우리 한국에서는 옷만을 너무 많이 만들어 두는 습관이 있다. 때로는 입기 위하여 만드는게 아니라 보존해 두기 위하여 또는 남에게 보여 주기 위하여 만드는 수도 있다.

이러한 흐름인지 도대체 옷을 많이 만드는 습관이 있다. 그러나 종전과 달리서 매년 질이 양호해 지고 가격이 저하 되는게 현 우리나라의

사정임으로 필요 없이 옷을 많이 만드는 것보담 적당한 종류와 수를 갖추어 알맞는 피복생활을 즐겨할 것이다. 종래와 같은 결혼 준비는 쓸데 없이 부모들을 괴롭히고 복잡만 하고 생활에 불필요한 물품을 많이 만들어 死藏이 되고만다.

5. 피복생활의 單一化……이것은 될 수 있는대로 韓服과 洋服의 사용을 적당히 구분하므로서 이중으로 오는 파용과 번잡을 방지하여야 한다. 韓服은 예식에 또는 잔치 또는 휴식복으로 하고 직장 또는 일할 때 運動服 寢具등은 양복으로 구분하며 이중생활을 피하고 유행과 사치보담 新鮮한 피복생활이 극히 요구된다.

우선 깨끗한 옷을 입도록 권하고 싶다. 우리의 피복교육은 이 신선한 피복생활을 하기 위한 합리적인 지식과 기능의 습득이 중요하다고 본다. 洗濯器의 준비도 생각하기에 달렸으며 년 2.3회만 하면 이불 호중은 일개월 또는 일주일에 한번씩, 내의는 매일같이 세탁하여 깨끗이 입고 싶다.

張明郁·外共著

家政學事典

編纂中